

고흥 ‘팔영대교·소록도·녹동항’ 인기몰이

반값여행 등 맞춤형 테마 상품·홍보 마케팅 성과 군, 우주철도999 상품·다도해 등 체험 콘텐츠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팔영대교, 소록도, 녹동항이 큰 인기를 끌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 관광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은 고흥과 여수를 잇는 연륙교인 ‘팔영대교’로, 총 56만명이 방문했다.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로 자리매김한 팔영대교는 인근 남열해돋이해수욕장, 고흥우주발사전망대와 연계되며 큰 시너지를 냈다.

특히 서평의 성지로 떠오른 남열해돋이해수욕

장에서 해양 레저를 즐기고, 우주발사전망대의 360도 회전 카페에서 나로우주센터 방향의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하려는 가족·연인 단위 관광객이 상반기 내내 줄을 이었다.

이어 ‘소록도’와 ‘녹동항’이 각각 21만명의 발길을 이끌며 공동 2위에 올랐다.

소록도는 역사적 의미를 품은 ‘치유의 섬’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의 삶과 애환이 서린 역사공원, 소록도 감금실 등 근대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

어 교육과 힐링을 동시에 충족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동통을 기록한 ‘녹동항’은 낚시객들과 식도락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인근 녹동장어거리에서 고흥의 대표 보양식을 즐기는 식도락 코스로 인기를 끌었음 뿐만 아니라 ‘고흥 녹동항 드론쇼’의 화려한 야간 군집 비행 퍼포먼스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역사·먹거리·야간 콘텐츠가 결합한 고흥만의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 성과로 분석된다.

군은 이와 같은 상반기 관광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특화 관광상품의 성공을 꼽았다.

고흥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고흥 반값여행,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우주과학열차, 생태관광 및 친환경 스포츠 여행상품 등 다채로운 맞춤

형 테마 상품 운영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중앙언론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흥행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고흥만의 독보적인 우주 인프라를 활용한 ‘우주철도999’ 상품과 다도해의 비경을 만끽할 수 있는 ‘섬 관광’ 등 체류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6년 상반기 고흥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하반기에도 ‘우주철도999’, 철도 연계 교통 여행상품과 같은 차별화된 체류형 패키지 상품을 적극 선보여 낮에는 우주와 자연을 만끽하고, 밤에는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복합관광도시 고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구례군, 응급의료협의체 출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참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소방·경찰이 함께하는 ‘구례군 응급의료협의체’를 출범하며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2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군보건의료원은 최근 ‘구례군 응급의료협의체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당면직 7명(보건의료원 5명, 소방 1명, 경찰 1명)과 위촉직 3명(구례병원 1명, 구례군의사회 1명, 구례군약사회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7월 23일부터 2028년 7월 22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은 구례군보건의료원장이 맞는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는 구례군보건의료원 산부인과장과 소아청소년과장, 구례서울의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구례병원장(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구례소방 구조구급팀 등 현장 중심의 전문 의료진이 대거 참여해 실질적인 응급환자 이송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기존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산모와 신생아, 소아 응급환자 등 전문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협의체 비상 연락망을 통해 해당 전문의와 즉시 연락하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전문 진료와 신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응급실 의료진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초기 진료는 물론, 중증환자의 적정 의료기관 전원 여부까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의료 공백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영훈 구례군보건의료원장 직무대리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판단과 전문의의 즉각적인 진료 연계다”며 “이번 협의체에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비롯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민이 더욱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0942@gwangnam.co.kr

순천 ‘천개의 아이디어’ 공모

7일까지 도시공간·소통 등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7일까지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천(天) 개의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머물게 하지 않고, 청년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도시공간 활성화, 청년 소통·홍보,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안전 등 청년의 삶 전반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다.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모바일 주소(https://naver.me/FWTEJGIS)를 통해 제출하거나 순천시 청년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www.suncheon.go.kr/youth) 누리집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제안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8월 말 순천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우수상 3명 각 50만원, 장려상 5명 각 20만원, 입선 50명 각 1만원 등 총 59명에게 수여된다.

시는 우수 아이디어를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이 직접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청년친화도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순천부 순천시장은 “청년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청년의 삶을 바꾸는 것이 청년친화도시의 출발점이다”며 “순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 어갈 청년과 시민들의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여수, 세계자연기금 ‘글로벌 파이널리스트’ 국내 유일 선정

OPCC서 탄소중립 정책·COP33 유치 노력 등 국제적 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이 주관하는 ‘2026 One Planet City Challenge(OPCC)’에서 대한민국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글로벌 파이널리스트(Global Finalist)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WWF OPCC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에너지 전환, 도시계획, 시민 참여,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적인 도시 기후평가 프로그램이다.

이번 선정은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탄소



중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시민 참여형 기후행동 등,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노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목표로 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산업 전환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운동 등 다양한 기후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 및 녹색대 전환 국제주간(Green Transformation Week)’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회의 개최 역량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기후주간 개회식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청

을 입증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을 넓혔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글로벌 파이널리스트 선정은 시민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후도시로서 COP33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장흥군, 폭력 피해자 안전·일상 회복 지원

전남여성가족재단·장흥여성단체협 등 업무협약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이 힘을 모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와 군민의 폭력예방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군민 폭력예방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폭력에 대한 군민의 인식과 민감성을 높이고, 예방정책 및 교육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군은 8월부터 9월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문강사의 지원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을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총 10회 실시할 계획이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폭력은 개인이나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기관,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군민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2011년 전국 군 단위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여성친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여성취·창업교실, 여성기술교육, 여성리더대학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안심등 설치 등 여성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남성요리교실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박성현 광양시장, 폭염 속 어린이 물놀이터 현장점검

시설 안전·폭염 대응체계 확인

박성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장은 어린이와 시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최근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와 마동근린공원 쉼터물놀이터를 방문해 시설 안전과 폭염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어린이 물놀이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와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현장의 운영 실태와 폭염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박성현 시장은 물놀이터 운영 상황과 시설물 관리 상태, 수질관리 실태, 안전요원 배치 현황, 응급상황 대응체계, 그늘막 설치 상태 등을 확인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날씨가 많이 더운데 편찮으십니까’,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박성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장(왼쪽)이 어린이 물놀이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은 없으십니까”라고 안부를 묻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와 보호자들의 이용 환경,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여부도 함께 살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